국토교통부 | 보도자료 | 대체불가 대한민국

보도시점 : 2026. 11. 9.(월) 11:00 이후(11. 10.(화) 조간) / 배포 : 2026. 11. 9.(월)

도심항공교통(UAM) 실증, 기술검증 넘어 지역 상용화로 확대

- 정부-기업·지방정부 협력 확대…지역별 운항노선·서비스 가능성 검증
- 11월 10일 서울에서 'Neo K-UAM 그랜드챌린지' 설명회 개최

□ **국토교통부**(장관 홍지선)는 도심항공교통(UAM)의 실제 서비스 도입을 준비하기 위해 기존 실증사업을 **기술실증 고도화와 지역상용화 실증의 두 축**으로 개편한 'Neo K-UAM 그랜드챌린지(Neo GC)'를 **추진**하고, 참여를 희망하는 지방정부와 기업, 기관 등을 대상으로 **11월 10일(화) 서울에서 설명회**를 **개최**한다.

○ 이번 설명회에는 지방정부와 기업, 관련 기관 관계자 등 200여 명이 참석한다. **사업의 개편 방향과 참여 절차, 향후 일정** 등을 안내하고, 12월 개최 예정인 **'파트너링 데이(Partnering Day)'의 취지와 준비사항**도 **설명**할 예정이다.

□ 그동안 **국토교통부**는 UAM의 안전성과 운항에 필요한 기술을 검증하기 위해 **2023년부터 기업 중심의 'K-UAM 그랜드챌린지(GC)'를** 추진해 왔다.

○ 전남 고흥과 인천 청라에서 기체 운항과 교통관리, 버티포트 운영 등을 점검하며 **UAM 운항에 필요한 기술과 경험을 축적**해 왔다.

○ 이러한 성과를 바탕으로 기존 기술실증을 고도화하는 한편, **지역 수요와 실제 서비스 도입여건까지 검증할 수 있도록 실증체계를 개편**한다.

□ 새롭게 추진하는 Neo GC는 기존 기술실증을 발전시킨 **'기술실증 GC'**와 **새롭게 도입하는 '지역 상용화 GC'로 구성**된다.

○ (기술실증 GC) 기존의 민간 주도, 개별기술 중심 실증에서 벗어나, **정부와**

민간이 협력하여 상용화에 필요한 기술과 운용체계를 통합적으로 검증하는 방식으로 개편한다.

- 실제 UAM 기체를 활용하여 기체 운항과 교통관리, 버티포트 운영 등을 연계 검증하고, **실증 목표와 성과를 공유하여 상용화에 필요한 기술적 완성도를 높일 계획**이다.

○ (지역상용화 GC) 지방정부와 기업 등이 함께 지역 간 연계, 공항 연계, 관광 등 **지역수요와 특성에 맞는 UAM 서비스를 구상**하고, **실제 운항과 서비스 운영 가능성을 단계적으로 검증**한다.

- 지역별 운항노선과 이착륙 시설, 운영방식 등을 구체화하여 **실증 성과가 시범사업과 상용화로 이어질 수 있도록 추진**할 계획이다.

< 기존 GC와 Neo GC 비교 >

구분	기존 GC	Neo GC	
		기술실증 GC	지역상용화 GC
목표	기술·운용체계 검증	상용화에 필요한 기술 검증	지역 서비스의 안전성, 운영가능성 검증
추진체계	민간 자율실증	정부 + 민간 협력	지방정부 + 기업 협력
실증방식	개별 기술 중심	실기체 기반 단계적 실증	지역 맞춤형 상용화 검증
주요성과	기술·운용 가능성 확인	실증데이터 축적, 제도 및 기술 개선과 연계	실제 서비스 구현·개시

□ 지역상용화 실증은 **지방정부와 기업, 관련 기관이 컨소시엄을 구성하여 참여**하는 방식으로 추진된다.

○ 지방정부는 지역 수요 파악과 기반시설, 행정적 여건 마련을, 기업과 관련 기관은 기체 운항, 교통관리, 시설 운영 등 전문적인 기술과 사업 수행을 담당하게 된다.

○ 국토교통부는 오는 **12월 Neo GC 공식 출범과 함께 '파트너링 데이'를 개최**하여 지방정부와 기업 등이 협력 상대를 발굴하고 컨소시엄을 구성할 수 있도록 지원할 계획이다.

□ **국토교통부 박준형 모빌리티자동차국장**은 “Neo GC는 그동안 축적한 기술검증 성과를 바탕으로 정부와 민간이 함께 상용화에 필요한 기술을 통합 검증하고, **지역의 실제 서비스 도입까지 준비하는 사업**”이라며,

○ “이번 설명회와 파트너링 데이가 지방정부와 기업이 **지역에 필요한 서비스를 함께 구상하고, 실증을 실제 사업으로 발전시키는 계기**가 되기를 기대한다”고 밝혔다.

담당 부서	모빌리티자동차국 도심항공교통정책과	책임자	과 장 김기훈 (044-201-4197)
		담당자	사무관 김종화 (044-201-4199)
			주무관 김규태 (044-201-4275)

대한민국 정책브리핑
대체불가 대한민국
OPEN 출처표시 공공누리 공공저작물 자유이용허락
미래를 짓다 모두를 잇다 MOVE TOMORROW

참고 **Neo GC 설명회 안내장**

국토교통부

PARTNERING DAY GUIDE

10 NOVEMBER 2026

Neo Grand Challenge

NeoGC 소개

실증에서 실제 서비스 준비로 나아갑니다.

Neo K-UAM Grand Challenge(NeoGC)

NeoGC는 기존 K-UAM 그랜드챌린지의 성과를 바탕으로 기술실증을 고도화하고, 실제 UAM 서비스 준비를 위한 지역실증을 새롭게 추진합니다.

기존의 실증 성과는 이어가되, 다양한 주체가 새롭게 참여하고 협력할 수 있도록 컨소시엄을 다시 구성합니다.

기술실증의 지속과 고도화

기존 실증 인프라를 활용해 기술 검증을 이어가고, 실제 기체를 활용한 실증으로 운항 경험과 데이터를 축적합니다.

지역실증의 신규 추진

지방정부와 기업이 컨소시엄을 구성해 지역에 필요한 서비스를 구상하고, 실제 운영에 필요한 여건과 서비스의 실현 가능성을 검증합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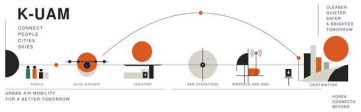
실증 성과의 사업화 연계

기술실증과 지역실증에서 얻은 결과를 바탕으로 운항체계와 서비스 운영계획을 구체화하고, 시범사업과 상용화에 활용합니다.

사전설명회 참가자 안내

NeoGC 파트너링 데이

함께할 이유를 찾는 자리입니다



2028년 UAM 서비스를 준비하는 지방정부와 기업, 기관이 서로의 계획과 역할을 이해하고 협력 가능성을 논의하는 자리입니다. 처음부터 투자나 컨소시엄 구성을 확정하기보다 서로의 여건과 필요한 조건을 알아봅니다.

지방정부는

지역에 필요한 UAM 서비스를 함께 준비할 기업과 기관을 만납니다. 지역이 가진 여건과 자원, 앞으로 필요한 것이 무엇인지 살펴봅니다.

기업과 기관은

보유한 기술과 경험을 활용할 사업 기회를 찾습니다. 참여할 수 있는 역할과 사업을 위해 필요한 것이 무엇인지 살펴봅니다.

함께하고 싶은 일과 서로 주고받을 수 있는 도움을 생각해 오시면 좋겠습니다. 각자의 목표와 가능한 범위·협력 조건을 담은 짧은 협의 자료를 준비해 주세요.

파트너링의 세부 목표

파트너링 데이에서 나눌 네 가지 이야기

1

목적과 역할을 확인합니다.

지방정부는 어떤 서비스를 준비하고 있는지, 기업과 기관은 어떤 기술과 역량을 갖추고 있는지 이야기합니다. 이를 바탕으로 각자가 맡을 수 있는 역할을 살펴봅니다.

2

준비와 협력 조건을 찾습니다.

각자가 가진 역량과 여건을 소개하고, 상대에게 필요한 것이 무엇인지 이야기합니다. 서로에게 도움이 되는 협력 조건을 찾아봅니다.

3

함께 추진할 사업을 구상합니다.

서로의 목표와 역량을 바탕으로 어떤 사업을 함께 추진할 수 있을지 논의합니다. 부족한 부분을 서로 보완하고, 개별적으로 준비할 때보다 효율적으로 사업을 추진할 수 있는 방안을 찾아봅니다.

4

다음 협의를 준비합니다.

컨소시엄 구성과 사업 추진을 위해 추가로 확인할 사항을 정리합니다. 파트너링 데이 이후에도 협의를 이어갈 수 있도록 담당자와 다음 논의 일정을 정합니다.

먼저 이야기할 세 가지

파트너링 데이에 앞서 생각해 볼 세 가지

1 우리는 무엇을 함께하고 싶을까요?

추진하고 싶은 서비스나 참여하고 싶은 사업을 생각해 봅니다. 어떤 역할을 맡고 싶은지, 이를 위해 어떤 파트너가 필요한지도 살펴봅니다.

2 무엇을 준비하고 어떤 도움이 필요할까요?

현재 갖추고 있는 기술과 역량, 지역의 여건을 살펴봅니다. 스스로 준비할 수 있는 것과 다른 파트너의 도움이 필요한 것을 구분해 봅니다.

3 어떤 조건이 갖춰져야 참여할 수 있을까요?

사업에 참여하기 위해 필요한 여건과 해결해야 할 과제를 생각해 봅니다. 참여 여부를 결정하기 전에 무엇을 더 확인해야 할지도 살펴봅니다.

준비의 깊이는 시점에 따라 달라집니다.

사전설명회	NeoGC의 목적과 참여 방식, 실증 지원 조건을 이해합니다.
파트너링 데이 이전	참여 목적과 협력에 필요한 사항을 미리 논의하고, 파트너에게 소개할 내용과 질문을 준비합니다.
파트너링 데이와 그 이후	서로의 생각과 참여 조건을 확인하고, 컨소시엄 구성과 사업 추진을 위한 협의를 이어갑니다.

지방정부의 준비

어떤 지역 서비스를 함께 만들고 싶습니까?



지역에 필요한 서비스

지역에서 어떤 UAM 서비스를 제공하고 싶은지, 이를 통해 어떤 효과를 기대하는지 생각해 봅니다. 예상 수요와 운항 장소, 다른 교통수단과의 연계 가능성도 함께 살펴봅니다.

지역에서 준비해야 할 것

지역에서 UAM 서비스를 시작하기 위해 필요한 시설과 행정적 지원, 재정 여건 등을 살펴봅니다. 현재 갖추고 있는 것과 앞으로 준비해야 할 것을 구분합니다.

필요한 파트너와 협력 여건

서비스를 준비하는 데 어떤 기업과 기관이 필요한지 생각해 봅니다. 기업이 참여할 수 있도록 지역에서 제공할 수 있는 여건과 필요한 지원을 함께 살펴봅니다.

지역의 계획만큼 기업의 참여 이유도 중요합니다.

지역에서 추진하려는 서비스뿐 아니라, 기업이 참여하여 얻을 수 있는 기회와 지역에서 제공할 수 있는 여건도 함께 설명해 주세요.

기관과 기업의 준비

어떤 역할을 맡고 무엇부터 준비하겠습니까?

역할과 참여의 가치

2028년 서비스에서 맡을 역할과 얻을 가치를 설명합니다. 매출 외에도 운영 경험, 자격·증명 준비, 향후 사업 기회를 생각합니다.



갖춰야 할 인력과 운영 기반

사업 참여에 필요한 전문 인력과 시설, 운영 체계 등을 살펴봅니다. 현재 갖추고 있는 것과 앞으로 준비해야 할 것을 구분합니다.

참여 범위와 필요한 조건

어떤 분야에 참여할 수 있고, 어느 정도의 인력과 비용을 투입할 수 있을지 검토합니다. 기업과 기관은 여러 지방정부와 각각 컨소시엄을 구성할 수도 있으므로, 참여 가능한 지역과 필요한 조건을 함께 살펴봅니다.

협력 상대에게 필요한 것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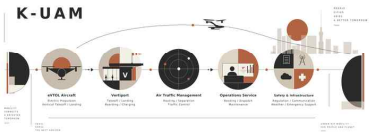
함께 사업을 추진할 상대에게 어떤 기술과 역량을 제공할 수 있는지, 어떤 도움이 필요한지 생각합니다. 맡기 어려운 역할이나 참여를 결정하기 위해 필요한 조건도 살펴봅니다.

실증 참여를 넘어 실제 사업까지 생각합니다.

NeoGC에서 쌓은 경험이 향후 사업으로 이어질 수 있도록, 함께할 파트너와 각자의 역할을 구체적으로 논의합니다.

파트너링 데이를 위한 준비

어떤 이야기를 나누고 싶습니까?



소개할 내용

추진하려는 서비스나 사업 구상, 보유한 기술과 경험을 간단히 정리합니다. 상대방이 참여 목적과 협력 가능성을 이해할 수 있도록 준비합니다.

만나고 싶은 파트너

어떤 지방정부, 기업, 기관과 협력하고 싶은지 생각합니다. 서로의 기술과 역량을 연결해 어떤 사업을 함께 추진할 수 있을지도 살펴봅니다.

함께 논의할 사항

사업을 함께 추진할 가능성이 있는지, 각자 어떤 역할을 맡을 수 있을지 이야기할 준비를 합니다. 협력에 필요한 조건과 추가로 확인할 사항도 생각해 봅니다.

협의를 위한 자료와 참석자

사업 구상과 보유 역량을 설명할 수 있는 간단한 자료를 준비합니다. 구체적인 협의가 이루어질 수 있도록 참여 가능성과 조건을 설명하고 후속 논의를 이어갈 담당자가 참석하면 좋습니다.

파트너링 데이 이후

함께 준비하면 더 효율적으로 시작할 수 있습니다.

협력 가능성이 확인된 파트너와 컨소시엄 구성을 구체화하면 서로의 기술과 경험을 활용하고 부족한 역량을 보완할 수 있습니다. 각자 준비할 때보다 중복되는 일을 줄이고, 사업에 필요한 준비를 함께 진행할 수 있습니다.

1 협력 가능성을 확인합니다.

파트너링 데이에서 만난 상대와 서로의 목표와 참여 조건을 확인합니다. 함께 사업을 추진할 수 있을지 논의하고, 추가로 확인할 사항을 정리합니다.

2 컨소시엄 구성을 논의합니다.

참여할 기업과 기관을 구체화하고 각자가 맡을 역할을 협의합니다. 필요한 역량이 부족하다면 새로운 파트너의 참여도 함께 검토합니다.

3 실증과 사업을 함께 준비합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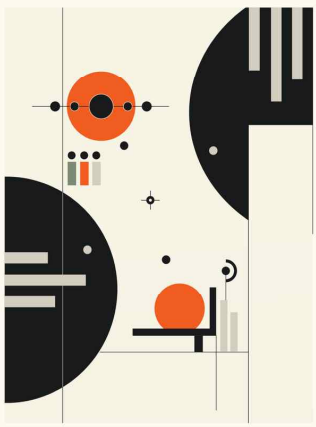
컨소시엄의 역할과 협력 범위를 정하고, 추진하려는 서비스에 필요한 실증을 논의합니다. 이후 실증 결과를 바탕으로 실제 사업에 필요한 준비를 이어갑니다.

컨소시엄 구성이 사업 준비의 시작입니다.

서로의 기술과 경험을 결합하면 개별적으로 추진하기 어려운 사업도 함께 준비할 수 있습니다. 국토교통부는 실증 환경을 제공하고 필요한 제도적 지원을 통해 이러한 협력이 실제 UAM 서비스로 이어질 수 있도록 뒷받침하겠습니다.

K-UAM

PEOPLE · CITIES · SKIES



CONNECTING PEOPLE & CITIES
THROUGH THE URBAN SKY

URBAN AIR MOBILITY FOR A BETTER TOMORROW